

『삼국유사』를 통해 본 신라의 왕경과 왕성체제*

조 이 옥**

- | | |
|------------------------------|------------------|
| I. 머리말 | III. 『삼국유사』에 보이는 |
| II. 『삼국유사』 소재 왕경 관련
기사 검토 | 통일신라 왕성체제 |
|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글은 신라 왕경에 대한 문헌자료 연구의 일환으로 일연의 『三國遺事』에 나오는 왕경의 다양한 모습과 왕성체제의 일면을 검토한 한 것이다. 대체로 왕성인 월성 관련 기사는 중고기에 집중적으로 보이다가, 통일 이후에는 월성 대신에 도성, 궁성 등 명칭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식 도성제의 영향에 따라 통일 이래 신라가 왕성체제를 새롭게 재편한 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통일기 신라는 월성바깥에도 새로이 독립적인 왕궁을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왕궁내의 기능도 점차 분화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왕의 월성은 의전과 외교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반면에 월성 북쪽에 독립적으로 조성된 왕궁에는 왕이 거처하는 내전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궁과 부속 건물이 조성된 형태가 아니었을까 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문화재청 산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신라 왕경 연구 기초자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삼국유사에 보이는 신라의 왕경과 연구방법론」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 joyok82@daum.net

요컨대 한국 고대사의 기본 사료인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성, 도성이란 용어는 통일신라시대 들어 새로이 월성 바깥에 위치하던 왕궁(만월성)을 일컫어 일반명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월성과 월성 북쪽에 새로운 왕궁이 정궁으로 기능하는 이른바 ‘兩城體制’는 신라말까지·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삼국유사, 신라, 왕경, 왕성, 월성, 만월성, 양성체제

I. 머리말

신라의 왕경인 경주는 건국 이후 멸망하기 까지 천여 년 간 유지된 고대도시이다. 당의 長安城, 일본의 平城京, 발해의 上京城과 달리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신라 왕경은 건국 당시부터 국가 발전이나 사회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신라 왕경의 성립 및 변천 과정을 제대로 추적해 내는 작업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

그 동안 신라 왕경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고고학적 발굴과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문헌 사학 분야에서 신라 왕경과 월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그 결과 신라사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내거나¹⁾, 이기봉, 전덕재, 박방룡 등 개인 연구자들의 축적된 연구 성

1)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國邑에서 都城으로-新羅王京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6, 2005);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신라왕경의 구조와 체계』,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7, 2006);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신라왕경인의 삶』,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8, 2007);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동

과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²⁾ 최근 들어 고고학 자료의 축적으로 신라 왕경과 월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크게 진전되고 있다. 다만 고고학적 자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라 왕경의 실체를 파악할 만큼의 만족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라 왕경의 모습을 전하는 문헌 자료가 영성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라 왕경의 실체에 접근하는 연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왕경 관련 기초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글은 신라 왕경에 대한 문헌자료 연구의 일환으로 일연의 『三國遺事』에 보이는 신라 왕경과 왕성의 실체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신라 왕경의 모습을 전적으로 다룬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본 사서인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경 관련 정보는 향후 왕경 연구의 기초적 문헌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글의 순서는 먼저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왕경 관련 용어를 주제별로 검토해 왕경 내부의 구조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왕의 왕성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기 신라 왕성의 성격을 재검토해 볼 것이다. 통일기 신라는 중국식 도성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왕성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라 왕성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앞으로 왕성 연구에 있어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시아 도성과 신라왕경의 비교연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9, 2008).

2) 이기봉,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 (푸른역사, 2007).

전덕재,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박방룡, 『신라 도성』, (학연문화사, 2013).

II. 『삼국유사』 소재 왕경 관련 기사의 검토

주지하듯이 신라 왕경 관련 문헌은 매우 희소한 편이다. 신라 왕경 관련 문헌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국 문헌과 일본 문헌에는 신라 왕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별로 들어있지 않다. 다만 당나라의 요사람이 편찬한 『梁書』 신라전에 보면 城을 ‘健牟羅’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邑을 ‘啄訃’이라 한 기사가 있다. 아울러 송나라 인종 4년(1044) 구양수와 송기 등이 칙명을 받아 찬술한 『당서』에 金城에 대한 기록 정도가 전하고 있어 왕경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문헌의 경우 신라 당대의 문헌 기록은 없으나, 금석문, 목간 같은 문자 자료 중에 신라 왕경 관련 자료가 일부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편찬된 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본 사료인 『三國史記』·『三國遺事』에는 신라 왕경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는 13세기 말 일연(1206-1289)이란 승려 개인이 편찬한 사서인데, 일연은 경주 출신으로 경주 일원을 순방하면서 현지에서 획득하거나 직접 보고 들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신라 왕경의 모습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삼국유사』에 보면 비교적 왕경의 구조나 주요 지명 및 다양한 모습을 전하고 있다. 다만 신라 왕경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파편적 형태로 여기 저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왕경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런 까닭에 특정 시기의 신라 왕경 모습은 물론이고 그 변천의 양상도 제대로 가늠해 내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단편적·파편적 형태로 여러 저기에 실려 있는 왕경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신라 왕경에 대한 연구와 복원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신라 왕경 연구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국유사』

에 나오는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신라 왕경의 모습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주요 주제로 본 신라 왕경

1	왕경·왕궁	京-京, 京都, 京中, 京城, 京師, 東京, 王京. 都-都, 都城, 東都, 王都, 闕-大闕, 宮-宮, 龍宮, 王宮, 內宮, 宮禁, 宮城, 宮室, 大內, 內帝釋宮, 東宮, 春宮, 北宮, 瑤石宮, 後宮, 官吏, 官人, 宮女 城-城, 王城, 金城, 月城, 京城, 王城.
2	왕궁 내부	殿-朝元殿, 內黃殿, 同禮殿, 臨海殿, 紫極殿, 寢殿, 內殿, 殿庭. 樓-東樓, 望德樓, 經樓, 龍樓, 青陽樓. 門-歸正門, 東門, 闕門. 기타 부속 건물-西堂, 內院, 貴妃庫, 御庫, 月城天尊庫, 內庭, 下馬臺, 東池, 別省.
3	사찰	大輿輪寺, 皇龍寺(黃龍·皇隆寺), 四天王寺, 靈妙寺, 永興寺, 芬皇寺(王芬寺), 反香寺, 頃只寺, 鶴寺, 崇福寺, 師子寺, 皇福寺, 曇嚴寺. 味吞寺, 鷺仙寺, 栢栗寺, 東泉寺, 昌林寺, 神元寺, 神衆寺, 天柱寺, 仁容寺, 天恩寺, 皇聖寺, 祇林寺, 天官寺, 華嚴寺, 金剛寺, 崇福寺, 報恩寺, 道林寺, 嚴莊寺, 南澗寺, 刺楸寺, 掘佛寺, 掘石寺, 道中寺, 生義寺, 性義寺, 衆生寺, 敏藏寺, 淨土寺, 甘山寺, 高寺, 天龍寺, 鑿藏寺, 有德寺, 金谷寺, 錫杖寺, 法林寺, 金光寺, 元寧寺, 穴寺, 皇福寺, 佛國寺, 石佛寺, 高仙寺, 道場寺, 茸長寺, 王望寺, 信忠奉聖寺, 金羽寺, 遠源寺, 突白寺, 南巷寺, 南山文殊寺, 琵琶庵, 南山삼성곡, 대적천원, 釋迦寺, 불무사, 久遠寺, 天嚴寺, 避里寺, 念佛寺, 양피사, 長壽寺, 弘孝寺
4	河川, 우물, 제방, 교량, 숲	未召疏川丘, 西川, 北川, 撥川, 荒川, 骨火川, 沙川, 年川, 蚊川, 三川, 青淵, 龍淵, 赤大淵, 仇知堤, 荒川東深渠, 東泉, 東池, 青池, 甘泉, 金光井, 闕英井, 娥利英井, 天宮井, 神見井, 瑤乃井, 金光井, 書出池, 鬼橋, 金橋, 西川橋, 松橋, 蚊川橋, 楡橋, 文仍林, 神遊林, 都林, 城北林
5	산, 고개, 계곡, 전담	南山, 東岳, 吐含岳, 西岳, 北山, 未黃山, 省等仍山, 伊山, 皆比山, 花山, 兄山, 明活山, 金剛山, 富山, 星浮山, 醉山, 三山, 高位山, 三岐山, 臂長山, 活里山, 四靈山, 西山, 青松山, 丐知山, 丐知巖, 四靈地, 鵝述嶺, 香嶺, 金剛嶺, 三花嶺, 三花述, 財貫谷, 皮田, 婿請田, 楊長谷, 比火壤, 立峴(立峴今彌勒大院東嶺是也) 觥峴, 耳峴, 硯峴

6	부, 지명	沙溪, 漸溪, 及梁部, 沙梁部(南山部), 漸梁部, 涿部, 牟梁部, 本彼部(通仙部), 漢歧部, 臨川部, 關川楊山村, 突山高墟村, 東村, 仇良伐, 麻等鳥, 道北, 回德, 南村, 茂山大樹村, 朴谷村, 泉林村, 西村, 嶺山珍支村, 柴巴, 東南村, 金山加里村, 勿伊村, 仍仇 称村, 關谷, 東北村, 避村, 壤避寺村, 上西知村, 乃兒, 東村, 馬等鳥村, 暗谷村, 赤善村, 赤谷村, 南山東麓有避里村. 浮雲村, 禹金里, 漢歧里, 萬善北里, 牟梁里, 銀川洞, 芬皇西里, 皇龍寺有西去房, 月明里, 孝養之里, 國師房, 松花房, 長沙, 伐知旨, 完乎坪, 枝良坪, 長倉, 右倉, 左倉, 利見臺, 天泉亭, 牟山亭, 鮑石亭, 西郊
7	능·제사	五陵, 始祖堂, 末鄒陵, 諛信公塚, 金公陵, 竹現陵, 大王岩, 大廟, 社稷
8	택호	金入宅, 富潤大宅, 南宅, 北宅, 弓比所宅, 本彼宅, 梁宅, 池上宅, 財買井宅, 北維宅, 南維宅 反香寺下坊, 陰宅, 賔支宅 反香寺北, 長沙宅, 上櫻宅, 下櫻宅, 水望宅, 泉宅, 楊上宅 梁南, 漢歧宅 法流寺南, 鼻穴宅 上同, 板積宅 芬皇寺上坊, 別教宅 川北, 衙南宅, 金楊宗宅 梁官寺南, 曲水宅 川北, 柳宅, 寺下宅, 沙梁宅, 井上宅, 里南宅, 弓所宅, 思內曲宅, 池宅, 寺上宅, 大宿宅, 林上宅 青龍之寺東方有池, 橋南宅, 巷叱宅 牟彼部, 樓上宅, 里上宅, 楡南宅, 井下宅, 四節遊宅, 東野宅, 谷良宅, 仇知宅, 加伊宅, 瓠公宅, 毛郎宅

출전: 강인구 외, 『삼국유사』 (이회출판사, 2002).

위의 <표 1>은 『삼국유사』에 보이는 신라 왕경 관련 기사를 주제어 별로 정리한 것이다. 왕경 내부 모습을 엿 볼 수 있는 주요 주제어로는 크게 왕궁과 왕성 내부 그리고 사찰과 관련한 지명 및 하천, 제방, 우물, 교량, 숲 등 자연지형을 비롯한 택호, 능, 제사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왕경에 해당하는 호칭으로는 京, 京都, 京中, 京城, 京師, 東京, 王京, 王都, 都, 都城, 東都 등이 여러 곳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京中이란 용어는 권제2, 紀異 辰韓條에 한번 나오며, 기이 태종 춘추공조에는 京城과 京師라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권2, 기이 文武王 法敏條와 권3, 塔像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및 권4, 義解 義湘傳教, 권2, 紀異 景文大王條에는 京師, 그리고 권2, 紀異 惠恭王條에는 王都, 권7, 感通 金現感虎條에는 都城 등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왕이 거처하는 왕궁에 대해서는 月城 관련기사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시기상 중고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 외에도 왕성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大闕, 闕, 王宮, 宮城 등이 보인다. 그리고 신라 왕성의 내부 구조와 관련해 중심 전각에 해당하는 건물로는 朝元殿, 內黃殿, 同禮殿, 臨海殿, 紫極殿, 寢殿, 內殿, 內庭 등이 보인다. 그 밖에 이층으로 된 누각으로는 東樓, 望德樓, 經樓, 龍樓, 靑陽樓가 있다. 왕성 내부의 문과 창고 등 부속 건물로는 歸正門, 東門, 闕門, 西堂, 內院, 貴妃庫, 御庫, 月城天尊庫, 下馬臺, 別省 등이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왕성 내 구조와 건물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왕성 바깥 영역에 위치한 지명으로 하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西川, 北川, 撥川, 荒川, 骨火川, 沙川, 年川, 蚊川, 三川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왕경의 범위와 관련이 있는 신라 6부의 명칭인 及梁部, 沙梁部, 漸梁部, 牟梁部, 本彼部, 漢歧部 와 그 6부에 소속된 村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인 형태로 상당수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왕경의 내부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里, 坊 그리고 사찰, 택호, 우물, 산 등에 대한 정보가 여기 저기에 흩어져 전하는데, 주로 단편적인 지명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엇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왕경 관련 기사 중에는 왕경에 산재해 있던 사찰 관련 기사가 비교적 풍부히 전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불교의 유입에 따른 사찰의 조영은 당시 왕경의 도시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왕경의 주요 사찰로는 七處伽藍과 7개의 성전사원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많은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다. 興法條에 나오는 “寺寺星張 塔塔雁行”이라는 표현과 같이 신라 왕경 각지에는 많은 탑과 사찰이 건립되어 졌는데, 이들 사찰의 건립은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³⁾

3) 신라 왕경의 사찰과 관련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신라 중고기의 왕경에는 적석목관분의 대형고총고분들이 평지에서 산록으로 이동하면서 사찰이 그 위용을 대신하게 되었다. 신라에 불교가 유입되는 시기에 창건된 사찰은 구획된 왕경 내에서 포용되는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이는 7처 가람-홍륜사(金橋東 天鏡林), 영흥사(三川岐), 황룡사(龍宮南), 분황사(龍宮北), 영묘사(沙川尾), 사천왕사(神遊林), 담엄사(堦講田)-은 불교의 유입과 함께 건립된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사찰들이다.

이중 홍륜사(544년), 황룡사(553년), 분황사(634), 영묘사(635년), 영흥사 등의 사찰은 불교의 공인과 함께 지어진 초기 가람들로 이 중 위치가 확실한 황룡사와 분황사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건물의 배치나 규모, 변천과정 등이 밝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분황사가 건립된 후에는 사찰의 기능도 하지만 최근 발굴된 苑池와 건물 및 시설물로 볼 때, 이곳은 궁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⁴⁾

신라 중대 들어 왕경에는 황복사, 천관사, 망덕사, 인용사, 중생사, 불무사, 감산사 등이 새로이 창건되었고, 신라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한 경덕왕대에는 굴불사, 불국사, 용장사, 보문사 등이 왕경의 중요 지역에 건립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라 왕경의 불국토사상이 사찰 창건에 그대로 투영된 모습을 보이는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신라 하대에는 대개 신라 왕실과 귀족들의 원찰인 무장사, 곡사, 승복사, 원원사, 창림사와 호원사 등이 오늘날 경주지역에 건립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왕경에 대한 정보들은 매우 단편적·파편적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연못·제방을 비롯한 우물, 교량·숲, 그리고 산, 고개·계곡, 능, 제사 및 택호

신창수, 「중고기 왕경의 사찰과 도시계획」 『신라왕경연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16, 1995); 박방룡, 「신라 왕경의 사찰조영」 『미술사학』13(1999); 김복순,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7(2006).

4) 이은석, 「황룡사 건립과 신라왕경의 조성」 『황룡사지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 발표 자료집』, (2016), p.44.

와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그것이다.

신라의 수도인 왕경은 왕과 그 일족이 거주하는 왕궁 또는 궁성을 비롯하여 행정 기관, 사찰 및 종묘, 각종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공방, 그것을 소비하는 왕경인들이 모여 사는 특화된 공간이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신라 왕경 관련 기사 가운데 왕경의 내부 공간 구성을 엿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래와 같이 전한다.

- 가-①. 신라 전성시대에는 京中에 17만 8,936호, 1,360방, 55리, 35 金入宅 있었다.⁵⁾
- ②. 남산 동쪽 기슭에 避里村이 있고, 그 마을에 절이 있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피리사라고 했다. 절에 이상한 중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항상 아미타불만 외었다. 그 소리가 城 안까지 들려 360방, 17만 호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중략)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진상을 흙으로 만들어 민장사에 모시고, 그가 본래 머물렀던 피리사도 念佛寺라고 이름을 고쳤다.⁶⁾

사료 가-①의 辰韓條에는 신라 전성기 京中에 17만 8,936호, 1,360방, 55리가 있었다고 하였고, 가-②의 권5, 堽불사조에는 城 안에 360방, 17만 호라는 기사가 있다. 대체로 사료 가-①에서 나오는 ‘신라 전성시대’에 대해서는 신라 하대 헌강왕대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가-②는 신라 중대 성덕왕대의 사정을 반영하였다는 견해와 경덕왕대의 사정이 반영되었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두 기사 모두 통일기 신라 왕경의 대략적인 모습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진한조에 나오는 京中 1,360방과 달리 堽불사조에는 城中 360방이라 하여 양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치상의 착오나 단순한 오기로 보기도 하고, 왕경의 확장되어 가는 모

5) 『三國遺事』 卷1, 紀異제2 辰韓, “新羅全盛之時 京中17萬8千9百36戶 1360坊 55里, 35金入宅.”
 6) 『三國遺事』 卷5, 避隱 제8 念佛寺條, “南山東麓有避里村, 村有寺 因名避里寺. 寺有異僧 不言名氏, 常念弥陀 聲聞于城中, 360坊 17萬戶, 無不聞聲, 聲無高下 琅琅一樣樣”

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왕경의 공간적 범위는 里-坊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이는데,⁸⁾ 리와 방이 일상생활의 단위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이유는 部라고 하는 단위가 공간적으로 너무 컸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6部인들과 기타 왕경에 유입되는 인구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 내부를 적절히 구획한 공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⁹⁾

왕경 내의 구획된 공간으로서의 里는 권1,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조의 沙梁里를 비롯해 권2, 기이 지철로왕의 牟梁里, 사복불연의 萬善北里, 권7, 감통 善律還生의 久遠寺 西南里, 권3 塔像 분황사 천수대비의 漢歧里, 월명사의 月明里, 만장사의 禹金里, 광덕장엄의 芬皇西里, 권9 孝善 貧女 養母의 芬皇寺東里 등이 확인된다. 里의 설정 범위는 현재 경주 시내부터 남산, 건천, 서면일대를 망라하고 있다.

坊과 관련해서는 권1 기이 辰韓條에 보면 반향사 하방, 분황사 상방 등이 단편적으로 전한다. 이와 같이 신라 왕경의 내부는 점차 6부를 근간으로 하는 중심지와 그 아래 55개 里와 1,360坊으로 구획된 모습으로 이해되는데, 京이란 이들 지역 전체를 통칭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경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왕경 내부의 구조와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7) 전덕재, 「신라 6부 명칭의 의의와 그 위치」 『경주문화연구』 1(1998);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여호규, 「국가의례를 통해 본 신라중대 왕성의 공간구조」 『한국의 도성; 도성 조영의 전통』,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2003).

8) 이현태, 「신라 왕경의 리방구획 및 범위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40(2012), pp.136-137. 왕경의 이방구역에 대한 견해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동쪽 경계는 명활산 부근, 東南 경계는 사천왕사와 당덕사 부근, 서남경계는 포석정 일대, 서쪽 경계는 서천, 북쪽 경계는 황성동 및 용강동 일대로 합일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왕경 연구에서는 현재의 경주 시내를 왕경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외곽의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왕경이 축소, 조정되었다든지 혹은 광역의 왕경으로 보는 것으로 갈리고 있다.

9) 이동주, 「신라 왕경의 정의와 그 범위」 『문헌으로 보는 신라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p.106.

장에서는 왕이 거처하는 왕성의 실체를 복원해 『삼국유사』에 반영된 신라 왕성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Ⅲ. 『삼국유사』에 보이는 통일신라 왕성체제

『삼국유사』에 보이는 신라 왕경 관련 기사 가운데 왕이 거처하는 왕성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月城을 비롯한 大闕, 闕, 王宮, 宮城, 都城 등 다양한 표현이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왕성의 내부에는 중심전각인 朝元殿를 비롯해 이층으로 된 누각 그리고 입·출입을 위한 각종의 문과 창고 등 부속 건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저기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며, 왕성 내 구조와 건물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대체로 왕경 연구자들은 소지마립간이 명활성에서 월성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 왕은 월성에 거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⁰⁾ 즉 국왕의 주된 거처이자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왕궁인 월성은 초기부터 신라 말까지 정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월성 안이 비교적 넓고 자연 경관이 좋아 왕궁으로서의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월성은 남면에 자연 조성된 斷崖와 남천이 흘러 성벽과 垓字 같은 역할을 하여 방어 상의 이로운 점이 있었다. 실제로 신라 중고기 역대 왕들은 월성 북면에 해자를 설치하는 등 방어력 증강을 도모하였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월성 관련 기사는 총 7건인데, 시기상 중고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월성에 대한 초기 기사는 월성이 길지임을

10) 전덕재, 앞 책(2009), p.178.

11) 삼국유사에 나오는 월성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타내거나, 월성이 홍수로 補築하였다는 기사 그리고 월성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 황천 가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있다. 대체로 중고기까지 국왕이 월성에 거처하였으므로 왕경 방위의 중심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권2, 紀異 射琴匣條와 天賜玉帶條에는 중고기 신라의 월성 내 대궁의 내부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 나) ①. 21대 毗處王이 炤智王이라고 한다. 즉위 10년 무진에 天泉亭에 거동하였다. (중략) 왕이 그러하다고 여겨 열어 보니 편지 가운데 “거문고 갑을 쓰라”고 적혀 있었다. 왕이 宮에 들어가서 거문고 갑을 쓰았다. 그 곳에서는 內殿에서 분향, 수도하는 승려가 宮主와 은밀하게 간통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¹²⁾
- ②. 왕이 즉위한 원년에 천사가 正殿의 뜰에 내려와 말하기를 “상제께서 나에게 명하여 이 옥대를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하였다. 왕이 친히 끌어앉아 그것을 받으니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무릇 郊廟와 大祀에는 항상 이것을 허리에 찼다.¹³⁾

위의 기사 나-①은 소지마립간시대 內殿에서 분수승이 궁주와 몰래 간통하였다는 내용이고, ②는 진평왕 즉위 원년에 천사가 正殿의 뜰에 내

第十四儒禮尼叱今 一作世里智王, 昔氏. 父諸賁, 母口召夫人, 朴氏. 甲辰立, 治十五年. 補築月城.(『三國遺事』 卷1, 王曆 第十四儒禮尼叱今); 是日沙梁里閼英井 一作娥利英井邊有雞龍現, 而左脇誕生童女 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姿容殊麗. 然而唇似雞嘴將浴於月城北川其鬻撥落, 因名其川曰撥川.(『三國遺事』 卷1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 八月四日瓠公夜行月城西里見大光明於始林中 一作鳩林, 有紫雲從天垂地.(『三國遺事』 卷1, 紀異 金閼智脫解王代); 每夜逃去遠遊王使勇士五十人守之, 每飛過月城西去荒川岸上 在京城西, 率鬼紫遊.(『三國遺事』 卷1, 紀異 桃花女鼻荊郎); 乃摘左邊第二窠沉溪即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駕還以其竹作笛藏於月城天尊庫.(『三國遺事』 卷2, 紀異 萬波息笛); 新羅月城東龍宮南 有迦葉佛宴坐石, 其地即前佛時伽藍之墟也, 今皇龍寺之地 即七伽藍之一也.(『三國遺事』 卷4, 塔像 迦葉佛宴坐石); 真興王即位十四 開國三年癸酉二月 築新宮於月城東, 有皇龍現其地, 王疑之改爲皇龍寺.(『三國遺事』 卷4, 塔像 迦葉佛宴坐石)

- 12) 『三國遺事』 卷1, 紀異 射琴匣條, “二十一毗處王 一作炤智王 卽位. 十年 戊辰幸於天泉亭(中略) 王然之開書見中云 射琴匣. 王入宮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與宮主潛通而所奸也 二人伏誅”
- 13) 『三國遺事』 卷1, 紀異 天賜玉帶條. “卽位元年有天使降於殿庭謂王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然後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려 왔음을 전한다. 당시 월성 내 건립된 왕궁 가운데 왕이 기거하는 공간은 대궁으로 불렸다.¹⁴⁾ 여기서 정전은 국왕이 참석하여 조회를 하거나 국가적인 의례를 거행하는 전각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전과 달리 국왕이 일상적으로 정무를 집행하거나 국왕이 기거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전각을 흔히 內殿이라고도 부른다. 위의 두 기사를 통해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미 월성 내 대궁에는 정전과 내전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월성에 위치한 여러 전각 가운데 조원전은 대궁의 정전으로 왕이 나와서 조회를 행하던 전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이는 왕성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면 통일기 신라의 왕궁에 대해서는 왕경 방위의 중심점이었던 월성을 그대로 적기하지 않고 대신에 京城¹⁵⁾, 宮城¹⁶⁾, 王宮¹⁷⁾, 都城¹⁸⁾ 등의 일반 명사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왕궁에 대한 용어상의 변화는 아마도 통일기 신라 왕성체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문무왕은 ‘宮內’에 연못을 파고 산을 조성하여 화초를 키우고 진기한 짐승과 새들을 길렀다. 문무왕이 당과의 전쟁 중에 왕궁을 새롭게 치장한 것은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서 ‘宮內’라는 표현은 당시 월성만을 한정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바깥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¹⁹⁾ 다시 말해 그 이전 어느 시점부터 신라 왕궁은 월성의 담장을 넘어서까지 확장된 상태였다. 이것은 월성 북쪽 해자가 6세기에 메워진 사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1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제4, 眞平王 44年 2月條와 卷39, 잡지 제8, 職官中 內省條.
15) 『三國遺事』卷4, 塔像 南月山亦名甘山寺條, “寺在京城東南二十許里 金堂主弥勒尊像火光後記云”; 『三國遺事』卷4, 塔像 鑿藏寺彌陀殿, “京城之東北二十許里暗谷村之北 有鑿藏寺”
16) 『三國遺事』卷2, 紀異 文武王 法敏條, “安吉陳其實老人曰 ”汝去宮城之西歸正門 待宮女出入者告之“
17) 『三國遺事』卷2, 紀異 惠恭王, “大恭角干家亡, 輸其家資寶帛于王宮”
18) 『三國遺事』卷5. 感通제7, 金現感虎條.
19) 주보돈, 「신라 왕경론」 『문헌으로 보는 신라 왕성과 월성』(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p.52.

문무왕은 대대적인 왕경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다. 문무왕 19년(679) 동궁 건립은 월성 외부 궁원지인 월지 인근에 확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다.²⁰⁾ 왕경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무왕은 기왕의 방어용 성격의 월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중국식 도성제를 새로이 채택하지 않았을까 한다. 왕성인 월성 부지 만으로는 시대 요구에 따라 증가한 각종 관부·관청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행정 업무를 분장하는 각종의 관아를 비롯해 궁중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공방 등 각종 핵심 시설물이 점차 월성 바깥으로 이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월성 북편과 성동동전랑지 사이 중간 위치의 인왕동 556번지 유적 발굴 시에도 5.5×3.6m주칸의 대형 건물지가 확인되어 이곳 역시 관청가의 일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월성 바깥에 해당하는 침성대와 그 주변 그리고 북편으로 전반적인 관청가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독립적인 관청가가 월성바깥에 새로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²¹⁾

이에 월성 북단과 동남단으로 새로이 조성된 영역에 많은 관청을 비롯한 건물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왕의 형제들도 월성 바깥에 독립적으로 조성된 왕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왕궁인 월성이 경주 분지 남쪽 편외 남천 가에 치우쳐 자리할 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수용하고 감당해 내기에는 내부 공간이 너무나 비좁았을 터였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 왕실로서는 국왕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기에 월성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 곳이었다.

『三國史記』 권34, 雜志에 보면 “처음 赫居世 21년에 궁성을 신축하고

20)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9年條 “8月, 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

21) 전덕재, 앞 책, p. 228; 이은석, 앞 논문, p. 46.

이름을 金城이라고 하였고, 婆娑王 22년에 금성의 동남에 성을 쌓고 이름을 月城이라 하였다. 혹은 在城 이라고도 하였는데 주위가 1,023步였다. 新月城 북쪽에 만월성이 있어 주위가 1,838步, (중략) 시조 이래 金城에 거쳐하다가 후세에 와서는 두 月城에 주로 居處하였다” 라고 하여 왕이 거쳐하는 왕성의 위치가 시대에 따라 변천해 갔음을 간략하나마 전하고 있다. 22) 즉 시조 이래 금성에 거쳐하다가 후세에 이르러 역대 왕들이 월성과 만월성 즉 兩城에 주로 거쳐하였음을 말해준다.

만월성이란 용어는 『三國史記』에만 보이고 있는데, 종래에 만월성의 성격과 그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다양하였다. 즉 만월성은 금성에 대한 다른 별칭이거나 또는 신월성의 지세에 加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와²³⁾ 월성의 북쪽에 위치한 독립한 성곽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졌다.²⁴⁾ 월성의 주위가 1,023步인 반면에 만월성의 주위가 1,838步라는 성의 규모로 보아 만월성은 월성에 가축된 성이 아니라 독립적인 성으로 월성 북쪽에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월성 바깥에 새로이 독립적으로 조성된 만월성이 왕궁으로 기능하였음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다. 다음해 갑오년 여름에 왕(景德王)이 또 대덕 法海를 황룡사에 청해 『화엄경』을 강론하게 하고, 가마를 타고 행차하여 향을 피우고 조용히 일러 말하였다. “지난 여름에 대현법사가 『금광경』을 강론하여 우물의 물이 일곱 길이나 솟아 나왔다. 당신의 법도는 어떠한가? 법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런 것은

22) 『三國史記』 卷34, 雜志 제3 地理1, “破娑王二十二年於金城東南 號月城 或在在城 周一千二十步 新月城北有滿月城 周一千八百三十八步 又新月城東有明活城 周一千九百六步 又新月城南有南山城 周二千八百四步 始祖以來處金城 至後世多處兩月城”

23) 윤무병, 앞 논문(1972).

24) 柳奭佑, 『慶州市誌』, (경주시시사편찬위원회, 1971). 근래에 박방룡은 삼국시대 후반부터 중대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왕궁이 월성만으로 좁았기 때문에 안압지 동쪽에서부터 천주 사지와 침성대를 포함한 나물왕릉 동쪽 부근까지 궁성지를 넓힌 것 같으며, 이때 주위를 土牆城壁으로 둘러쌌고, 이것이 마치 滿月과 같은 모양이어서 만월성이라고 불렀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박방룡, 앞 책, p208).

아주 작은 일이어서 칭찬할 게 못 됩니다. 지금 바로 창해의 물을 기울여서 東岳에 넘쳐오르고 京師까지 떠내려가게 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중략) 잠시 뒤에 宮中에서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더니 궁중의 관리가 달려와서 아뢰었다. “東池이 이미 넘쳐 內殿 50여 간이 떠 내려 갔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멍하니 넋을 잃자 법해가 웃으면서 아뢰었다. ”동해를 기울이려고 했더니 수맥이 먼저 불어났을 뿐입니다.“²⁵⁾

위의 인용문은 『삼국유사』 권4, 義解 賢瑜伽 海華嚴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경덕왕 12년 (754) 여름에 대덕 法海와의 일화를 소개한 내용인데, 東池가 넘쳐 內殿 50여 간이 떠 내려 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東池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방위상 월성 바깥 동북쪽에 있던 비교적 수량이 풍부한 연못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⁶⁾

국왕의 주된 거처이자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궁을 정궁 혹은 법궁이라 한다. 흔히 정궁의 구조는 정전과 내전 및 부속 건물로 구성되는데, 정전은 국왕이 참석하여 조회를 하거나 국가적인 의례를 거행하는 전각에 해당한다. 그리고 내전에는 국왕이 매일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便殿, 왕이 기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寢殿, 왕비와 후궁들이 기거하며 생활하는 중궁전 및 후궁전, 그리고 왕과 왕비, 후궁들을 보좌하는 궁리 및 궁녀들이 기거하는 건물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대체로 왕궁의 내부 구조를 감안할 때, 위의 기사에 나오는 內殿은 월성 바깥에 새로이 조성한 왕궁(만월성) 내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어도 東池가 넘쳐 떠 내려 갔다고 전하는 내전의 위치는 구릉지에 위치한 월성보다는 평지에 조성된 왕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5) 『三國遺事』 卷5, 義解 賢瑜伽 海華嚴, “明年 甲午夏 王又請大德法海於黃龍寺, 講華嚴經. 駕幸行香, 從容謂曰 “前夏大賢法師講華嚴經, 井水湧七丈, 此公法道 如何?” 海曰 “特爲細事, 何足稱乎 直使傾滄海, 襄東岳, 流京師, 亦非所難” 王未之信, 謂戲言爾. 至午講(中略), 宮吏走報曰 “東池已溢 漂流內殿五十餘間” 王茫然自失, 海笑謂之曰 “東海欲傾, 水脈先漲爾”

26) 『三國遺事』 卷2, 紀異 元聖大王條,

따라서 월성 이외에도 독립적으로 조성된 왕궁에 왕과 왕비의 거처에 해당하는 내전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신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경덕왕대에 이르면 적어도 독립적으로 조성된 왕궁이 기왕의 월성과 더불어 정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월성 바깥 구역 내에 새로이 조성된 王宮·宮城, 都城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 시기와 그 위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성동동전랑지가 사료상에 보이는 北宮이며, 통일 이후에 왕이 거처한 정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²⁷⁾ 윤무병과 신창호는 중국의 長安宮이나 일본의 平城宮, 발해 상경성의 王宮 등이 모두 북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신라 역시 北宮으로 추정되는 성동동전랑지가 宮城이었다고 이해하였다.

근년에 들어서는 月池宮을 정궁의 영역으로 보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²⁸⁾ 최치원이 지은 <鳳巖寺智證大師塔碑>에는 현강왕이 대사를 월지궁에 불러들여 가르침을 받는데, 월지궁에 대해 濶樹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서 濶樹는 전한대 사람인 孔光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베푸는 공간 혹은 왕의 대전에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²⁹⁾ 따라서 월지궁이 월성의 대궁에 비견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공간이었음을 엿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대체로 신라의 왕성 역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위상과 기능도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월성 내 대궁에 위치한 조원전은 의전과 외국사절을 맞이하는 외교 의례를 거행하는 의례공간인 반면에,³⁰⁾

27) 윤무병, 「역사도시 경주의 보존에 대한 조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대한 연구 1』, (과학기술처, 1972); 「新羅王宮考」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9-1(2010); 김창호, 「고신라의 도성제 문제」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6(1995), pp 91-95.

28) 양정석, 「신라 월지와 동궁의 변화과정 검토-월지 남편 건물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19(2011); 김병곤, 「신라 동궁의 역할과 영역-임해전 및 안압지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20(2015).

29) 최영성, 「월지궁 관련 자료 재검토-동궁은 태자궁이 아니다」 『동양고전연구』55(동양고전학회, 2014).

평지에 위치한 왕궁은 정무를 비롯한 일상적 업무와 생활하는 거처로 그 기능이 분화된 것은 아닐까 한다. 통일신라 역대 왕들은 유사시에 대비해 별도의 왕궁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는 인식 하에 신라 말까지 월성과 만월성이라는 ‘兩城體制’를 유지한 것이 아닐까 한다.

왕궁은 왕이 정무를 보는 곳인 동시에 왕과 왕의 직계존속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새로이 조성된 왕궁의 영역에는 이궁 혹은 별궁도 존재하였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혜공왕 2년에 北宮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¹⁾ 별궁 혹은 이궁에 거주하던 이들은 주로 왕의 형제와 자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어느 시점에 월성 바깥에 월지궁을 비롯한 동궁, 북궁, 남궁 등이 순차적으로 조성되자 이들을 포괄하여 토성장벽을 둘렀을 것이다.

대체로 문헌에 보이는 동궁, 북궁, 남궁, 선천궁, 신궁, 영창궁, 영명신궁, 후궁, 월지궁 등 여러 궁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월성과 만월성 내에 위치하였을 것인데, 아직까지 궁을 비롯한 부속 건물의 구체적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별로 없다. ³²⁾ 다만 새로이 조성된 왕궁의 영역과 관련해 『삼국유사』 권7, 感通 제7 金現感虎 條에 보면 “원성대왕께서 높은 벼슬을 내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저를 잡게 할 것입니다. 낭군께서는 겁내지 말고 城北에 있는 숲속까지 저를 쫓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기사가 있다.³³⁾ 여기서 城北에 있는 숲이란 서천 주변에 조성된 숲을 말한다. 대체로 서천의 범람을 막거나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 『三國遺事』 卷5, 感通제7 月明師 도술가; 『三國史記』 卷10, 哀莊王 7년 3월; 『三國史記』 卷11, 景文王 8년 7월.

31) 『三國遺事』 卷2, 紀異 惠恭王條, “是年7月, 北宮庭中, 有二星墜地, 又一星墜, 三星皆沒入地”

32) 전덕재는 『삼국사기』에 보이는 만월성의 영역에 대해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월성을 포함한 동남쪽의 국립 경주박물관 일대 지역과 월지 동쪽으로부터 천주사지와 침성대를 포함한 내물왕릉 동단까지로 이해해 월성의 외연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전덕재, 앞 책).

33) 『三國遺事』 卷5. 感通제7, 金現感虎, “大王必募以重爵而祿我矣 君其無憚追我乎城北林中吾將待之.”

숲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⁴⁾ 도성 북쪽의 위치가 서천가에서 멀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 할 때, 이 기사는 월성 북쪽에 위치한 만월성의 북단이 성동동전랑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래 통일기 신라의 왕궁은 월성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월성 내에 있던 정궁의 위치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이견도 상당한 것 같이 보이고 있다. 즉 성동동전랑지를 정궁으로 보기도 하고, 월지궁을 정궁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비롯한 문헌 상에 나타나는 신라 왕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신라 왕경에는 월성과 월성 북쪽에 독립적인 성으로 만월성이 존재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통일기 신라의 역대 왕들은 유사시에 대비해 별도의 왕궁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는 인식 하에 신라 말까지 월성과 만월성이라는 ‘兩城體制’를 유지한 것이 아닐까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왕경에 대한 문헌자료 연구의 일환으로 일연의 『三國遺事』에 나오는 왕경의 다양한 모습과 왕성체제의 일면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삼국유사』가 13세기 말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활용할 때에 해당 기록, 지명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주의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왕경과 왕이 거처한 왕성 관련 기사를 다각도로 검토해 신라 왕성이 月城에 위치한다는 기존의 견해에서 탈피해 월성 북쪽에 독립적으로 조성한 滿月城과 더불어

34) 이원태, 앞 논문, p.40.

‘兩城體制’로 운영·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통일기 신라는 월성바깥에도 새로이 독립적인 왕궁을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왕궁내의 기능도 점차 분화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왕의 월성은 의전과 외교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반면에 월성 북쪽에 독립적으로 조성된 왕궁에는 왕이 거처하는 내전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궁과 부속 건물이 조성된 형태가 아니었을까 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경 관련 기사만으로 신라 왕경과 왕성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금석문, 목간을 포함한 새로운 자료 발굴과 함께 고고학 분야와의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신라 왕경과 왕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논문투고일자: 2018.07.15. 심사완료일자: 2018.08.24. 게재확정일자: 2018.08.27.

[참고문헌]

- 강인구 외, 『삼국유사』, 이회문화사(2013).
-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경주문화원,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國邑에서 都城으로-新羅王京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6, 2005).
-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경주문화원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신라왕경의 구조와 체계』,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7, 2006).
- 이기봉, 『고대 도시 경주의 탄생』, (푸른역사, 2007).
- 전덕재,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 박방룡, 『신라 도성』, (학연문화사, 2013).
- 주보돈 외,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 김창호, 「고신라의 도성제 문제」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6(1995).
- 박방룡, 「신라 왕경의 사찰조영」 『미술사학』13(1999).
- 양정석, 「신라 월지와 동궁의 변화과정 검토-월지 남편 건물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19(2011).
- 윤무병, 「역사 도시 경주의 보존에 대한 조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대한연구 I』 (과학기술처, 1972).
- 윤무병, 「新羅王宮考」 『학술원논문집』 (인문 사회과학편) 49-1, (2010).
- 이동주, 「신라 왕경의 정의와 그 범위」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이은석, 「황룡사 건립과 신라왕경의 조성」 『황룡사지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 발표자료집』, (2016).
- 이현태, 「신라 왕경의 리방구획 및 범위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40(2012).
- 최영성, 「월지궁 관련 자료 재검토-동궁은 태자궁이 아니다」 『동양고전연구』 55 (2014).

Silla capital and palace system from Samkukyusa

Cho, Lee-ok

[Abstract]

This article is that take a view of a side of silla capital to arrange and analyze related king and capital of silla from samkukyusa. first, to arrange and analyze article related king and capital thematically, reviewed utilization plan to restore king and capital. second, I estimated scale of field and Process of changes in silla king palace after review to article related silla king palace in articles related king and capital.

I think that silla king palace following unity specialized function with changing on enlarged type outward the existing wol palace(월성). I think that wol palace be named palace is used to do protocol and diplomatic protocol, on the other hand, generally space which king reside maybe are new type in wo palace(만월성) area outside wol palace. I think a so-called two palace system of silla king palace are changed by keeping this type at the end of the silla.

(A part-time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 joyok82@daum.net)

Key words : samkukyusa, silla, capital, king palace, wol palace, wo palace, two palace system.